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이창호 연구위원

Vol.6 2012. 12.

| 조사목적 |

- ▶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다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화세대인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를 다룬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를 통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이용시간, 이용동기,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를 분석하고자 함

| 조사대상 |

- ▶ 전국의 고등학생 1-3학년 2,574명, 대학생 1-4학년 2,302명 등 총 4,876명

| 조사방법 |

-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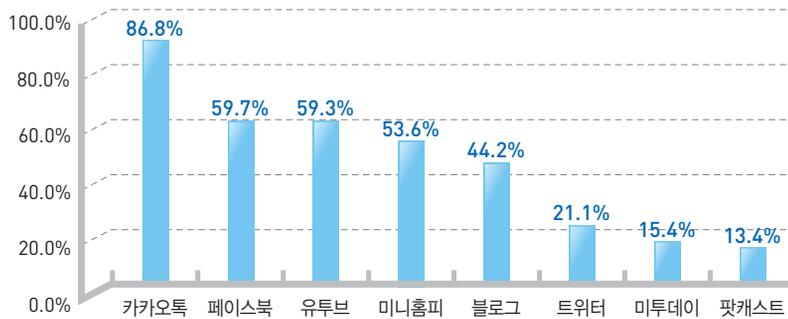
| 조사기간 |

- ▶ 2012년 6월 한달간

소셜미디어 이용현황



-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지 살펴본 결과, 8가지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전체 응답자의 86.8%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음. 카카오톡과 더불어 페이스북과 유튜브, 미니홈피, 블로그의 이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그림] 소셜미디어 이용 비율

- 하지만 미투데이, 트위터, 팟캐스트의 이용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즉 전체 응답자의 21.1%가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13.4%만이 팟캐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가장 즐겨 이용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트위터, 팟캐스트 등 비교적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이용률은 매우 낮았음.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를 살펴본 결과, 아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재미있고 즐거워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반면, 유명인들과 쉽게 교류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음. 특히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드러났음.
- 대학생들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음.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보다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거나 재미있고 즐거워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목적이 많았음.

[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

	합계	교급별		성별	
		고등학생	대학생	남	여
1) 나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 이용한다.	2.53 (.807)	2.39 (.838)	2.68 (.745)	2.47 (.843)	2.60 (.763)
2)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용한다.	2.85 (.732)	2.87 (.777)	2.83 (.681)	2.79 (.787)	2.91 (.666)
3) 아는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3.27 (.765)	3.25 (.823)	3.29 (.697)	3.18 (.814)	3.37 (.698)
4)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 수 있어 이용한다.	2.29 (.864)	2.19 (.865)	2.40 (.850)	2.32 (.884)	2.26 (.843)
5)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2.17 (.837)	2.07 (.849)	2.28 (.809)	2.16 (.871)	2.18 (.800)
6) 유명인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어 이용한다.	1.93 (.830)	1.83 (.816)	2.03 (.832)	1.86 (.827)	2.00 (.827)
7)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용한다.	3.12 (.728)	3.13 (.749)	3.12 (.705)	3.04 (.783)	3.21 (.655)
8)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어 이용한다.	3.09 (.772)	3.03 (.821)	3.16 (.710)	2.98 (.813)	3.21 (.709)
9) 학습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한다.	2.34 (.829)	2.20 (.832)	2.49 (.801)	2.28 (.861)	2.39 (.792)
10) 주위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용한다.	2.72 (.812)	2.59 (.848)	2.85 (.747)	2.66 (.867)	2.78 (.746)
11)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기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	1.99 (.945)	1.79 (.893)	2.20 (.953)	1.93 (.949)	2.06 (.937)

* 전혀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 ()은 표준편차임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증진



-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자본이 어느 정도 증진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데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데도 긍정적이었음.
-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도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했음.
-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교량적 사회자본(1번~6번 문항) 및 결속적 사회자본(7번~10번 문항)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합계	교급별		성별	
		고등학생	대학생	남	여
1)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78 (.725)	2.75 (.777)	2.81 (.665)	2.71 (.787)	2.86 (.648)
2)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접할 수 있다.	2.45 (.793)	2.35 (.835)	2.56 (.732)	2.38 (.827)	2.53 (.750)
3)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49 (.784)	2.43 (.830)	2.56 (.727)	2.41 (.828)	2.58 (.726)
4)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2.48 (.793)	2.39 (.824)	2.57 (.746)	2.38 (.836)	2.57 (.733)
5)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다.	2.67 (.782)	2.63 (.826)	2.72 (.728)	2.60 (.826)	2.75 (.726)
6)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52 (.785)	2.48 (.812)	2.57 (.753)	2.49 (.830)	2.56 (.734)
7)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2.51 (.823)	2.46 (.872)	2.56 (.764)	2.49 (.845)	2.52 (.799)
8)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61 (.832)	2.57 (.874)	2.65 (.783)	2.57 (.867)	2.64 (.794)
9)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71 (.834)	2.66 (.884)	2.76 (.774)	2.66 (.856)	2.75 (.809)
10)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사적인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2.62 (.874)	2.58 (.925)	2.66 (.813)	2.59 (.898)	2.65 (.847)

* 전혀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 ()은 표준편차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어난 변화



-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어난 변화 중 주목할 것은 정치, 사회적 관심이 늘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37.1%)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임.

또한 선생님(대학생의 경우 교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답한 비율(21.1%)도 매우 적었음.

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존에 알던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76.9%) 관심 있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다(66.1%)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음.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65.1%)도 높게 나타났음.
- 이 같은 사실은 소셜미디어가 정치,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정보획득과 인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음.

[표3]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어난 변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전체	
1) 정치, 사회적 관심이 늘었다.	전체	18.7%	44.2%	34.2%	2.9%	100.0%	
	교급별	고등 학생	573 23.5%	1041 42.6%	749 30.7%	78 3.2%	2441 100.0%
		대학생	313 13.7%	1051 45.9%	866 37.8%	58 2.5%	2288 100.0%
	성별	남	544 22.7%	1026 42.9%	749 31.3%	73 3.1%	2392 100.0%
		여	342 14.6%	1066 45.6%	866 37.1%	63 2.7%	2337 100.0%
	2) 기존에 알던 친구들과 더 친해졌다.	전체	6.2%	16.9%	60.0%	16.9%	100.0%
교급별		고등 학생	202 8.3%	362 14.8%	1434 58.7%	443 18.1%	2441 100.0%
		대학생	92 4.0%	437 19.1%	1404 61.4%	355 15.5%	2288 100.0%
성별		남	199 8.3%	428 17.9%	1384 57.8%	382 16.0%	2393 100.0%
		여	95 4.1%	371 15.9%	1454 62.2%	416 17.8%	2336 100.0%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전체	
3)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되었다.	전체	10.9%	33.2%	45.9%	10.1%	100.0%	
	교급별	고등 학생	315 12.9%	801 32.8%	1077 44.1%	247 10.1%	2440 100.0%
		대학생	199 8.7%	768 33.6%	1091 47.7%	228 10.0%	2286 100.0%
	성별	남	302 12.6%	722 30.2%	1105 46.2%	262 11.0%	2391 100.0%
		여	212 9.1%	847 36.3%	1063 45.5%	213 9.1%	2335 100.0%
4) 선생님(교수님)과 더 가까워졌다.	전체	28.3%	50.6%	18.5%	2.6%	100.0%	
	교급별	고등 학생	819 33.6%	1253 51.4%	326 13.4%	42 1.7%	2440 100.0%
		대학생	521 22.8%	1139 49.8%	547 23.9%	81 3.5%	2288 100.0%
	성별	남	745 31.1%	1129 47.2%	442 18.5%	76 3.2%	2392 100.0%
		여	595 25.5%	1263 54.1%	431 18.5%	47 2.0%	2336 100.0%
5)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다.	전체	9.5%	24.5%	54.8%	11.3%	100.0%	
	교급별	고등 학생	273 11.2%	579 23.7%	1262 51.7%	326 13.4%	2440 100.0%
		대학생	176 7.7%	577 25.2%	1328 58.0%	207 9.0%	2288 100.0%
	성별	남	298 12.5%	592 24.7%	1236 51.7%	267 11.2%	2393 100.0%
		여	151 6.5%	564 24.2%	1354 58.0%	266 11.4%	2335 100.0%
6)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다.	전체	9.9%	25.0%	52.7%	12.4%	100.0%	
	교급별	고등 학생	281 11.5%	578 23.7%	1250 51.2%	332 13.6%	2441 100.0%
		대학생	187 8.2%	605 26.4%	1241 54.2%	256 11.2%	2289 100.0%
	성별	남	308 12.9%	619 25.9%	1185 49.5%	281 11.7%	2393 100.0%
		여	160 6.8%	564 24.1%	1306 55.9%	307 13.1%	2337 100.0%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사회적 실천



●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정치적 참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나마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전체의 36.1%)이 가장 높았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적이 있는 비율은 15.5%에 불과함.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6.6%였고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기부참여가 더 높았음.

[표4]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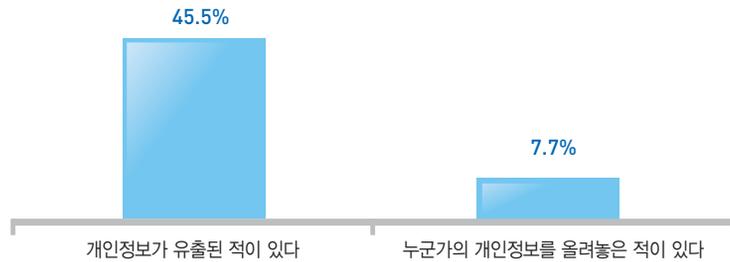
		없다	있다	전체	
1)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있다.	전체	83.4%	16.6%	100.0%	
	교급별	고등학생	1971 80.8%	469 19.2%	2440 100.0%
		대학생	1973 86.1%	318 13.9%	2291 100.0%
	성별	남	2033 85.0%	359 15.0%	2392 100.0%
		여	1911 81.7%	428 18.3%	2339 100.0%
	2)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체	63.9%	36.1%	100.0%
교급별		고등학생	1546 63.4%	893 36.6%	2439 100.0%
		대학생	1475 64.4%	816 35.6%	2291 100.0%
성별		남	1658 69.3%	733 30.7%	2391 100.0%
		여	1363 58.3%	976 41.7%	2339 100.0%

		없다	있다	전체	
3)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체	90.8%	9.2%	100.0%	
	교급별	고등학생	2240 91.9%	198 8.1%	2438 100.0%
		대학생	2052 89.6%	239 10.4%	2291 100.0%
	성별	남	2206 92.3%	185 7.7%	2391 100.0%
		여	2086 89.2%	252 10.8%	2338 100.0%
4)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 인증샷을 올린 적이 있다.	전체	92.4%	7.6%	100.0%	
	교급별	고등학생	2365 97.0%	73 3.0%	2438 100.0%
		대학생	2006 87.6%	285 12.4%	2291 100.0%
	성별	남	2225 93.1%	166 6.9%	2391 100.0%
		여	2146 91.8%	192 8.2%	2338 100.0%
5)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적이 있다.	전체	84.5%	15.5%	100.0%	
	교급별	고등학생	2098 85.9%	343 14.1%	2441 100.0%
		대학생	1901 83.0%	390 17.0%	2291 100.0%
	성별	남	2015 84.2%	377 15.8%	2392 100.0%
		여	1984 84.8%	356 15.2%	23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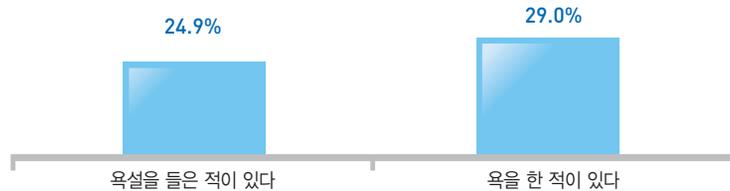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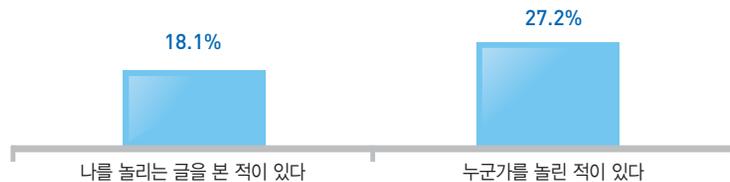
-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절반(45.7%)에 육박해 SNS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9%였고 욕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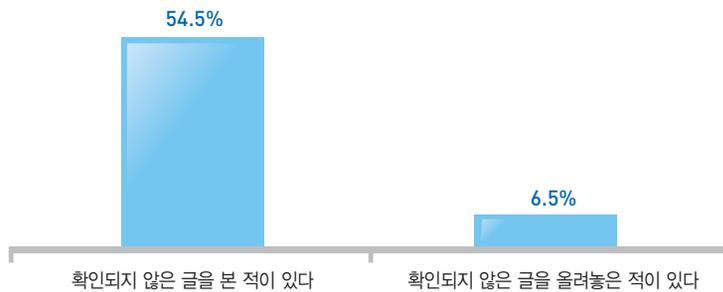
- 자신을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8.1% 였으나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2%에 달했음.



- 또한 전체 응답자의 3.8%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8%로 두배 가량 높았음.



- 더불어 소셜미디어 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나 소문 등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반 이상(54.5%)이어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이 퍼져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